

# 비수도권 중소도시의 인구성장과 단계적 이동: 전라북도를 사례로

이정섭\*

## The Population Growth of Local Cities and the Stage Migration: A case study of Jeollabuk-do

Chungsup Lee\*

**요약 :** 이 연구는 전라북도를 사례로 부모-자녀 세대에 걸쳐 진행되는 단계적 이동이 비수도권 중소도시 인구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모 세대를 베이비 부머, 자녀 세대는 에코 부머로 설정하였고, 거시자료를 이용하여 이들의 출생, 분포 변화와 선별적 이동과정을 추적하였다. 그리고 단계적 이동을 분석하기 위해 전라북도 시부, 군부 및 타 시도를 각각 출발지와 도착지로 설정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비 부머 세대는 전라북도 시부보다 군부에서 출생아수가 약 7배 이상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부모 세대가 성장하여 선별적 이동을 진행할 때, 전라북도 시부와 군부 모두에서 타 시도로, 특히 수도권과 대도시로 이출이 탁월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전라북도 군부 출생자 상당수는 시부로도 이동하였고, 그 이동량은 전라북도 시부에서 타 시도로 이출한 양을 채워주는 수준이었다. 셋째, 자녀 세대에서는 전라북도 군부보다 시부에서의 출생아수가 더 많은데, 이것은 부모 세대가 농촌에서 도시로 단계적 이동을 했던 것에 기인한다. 넷째, 자녀 세대의 20대 연령 선별적 이동에서도 부모 세대와 유사하게 수도권과 대도시 등으로 이출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전라북도 군부에서 시부로 이입되는 이동량이 부모 세대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결과적으로 전라북도 도시들에서 음(-)의 순이동자 수가 해마다 누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단계적 이동은 인구의 사회적 성장요인이자 동시에 이동자 생애경로의 결혼, 출산, 양육 등과 결부되어 자연적 성장요인에도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부모-자녀 세대에 걸쳐 진행되는 단계적 이동은 비수도권 중소도시 인구의 증가와 감소를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인구 성장, 단계적 인구이동, 세대, 베이비 부머, 에코 부머, 집계자료

**Abstract :** This study seeks to clarify the influence of the stage migration which has proceeded through generations, on the population growth of local cities in the case of Jeollabuk-do. For this, setting to baby boomer as parents generation and echo boomer as their children, this study traces each generation's birth, distribution and the process of selective migration using aggregate level data. And the stage migration is analyzed by O-D, divided into three regions in each; Jeollabuk-do rural areas, Jeollabuk-do cities and other province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estimated that the number of the baby boomer births in Jeollabuk-do rural areas was seven times more numerous than in cities. Second, both rural and urban born baby boomers overwhelmingly moved into other provinces, especially Seoul metropolitan area and metropolis in their selective migration processes. However, there was also migration stream from rural areas to cities in Jeollabuk-do and the amount of this stream was approximately equal to the amount of outflux from cities in Jeollabuk-do to other provinces. Third, due to baby boomers' stage migration, from rural to urban, echo boomers were born in cities more than in rural areas. Fourth, urban

\* 전북대학교 쌀·삶·문명연구원 전임연구원(Research fellow, Institute of Rice, Life and Civiliz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yisup@jbnu.ac.kr

born echo boomers still have moved into other provinces just like their parents generation in selective migration process. But comparing with baby boomer, the number of echo boomers influx from rural areas to cities has decreased. Consequentially the population of echo boomer in Jeollabuk-do cities also has decreased. Finally, the stage migration has been a basic cause of the social growth of urban population, and also influenced on the natural growth, closely connected with migrants' life course, such as marriage, childbirth and rearing. Therefore,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stage migration through generations is one of the crucial factor to understand the population growth in local cities.

**Key Words** : population growth, stage migration, generation, baby boomer, echo boomer, aggregate data

## 1. 서론

1990년에서 2000년까지 약 5.98%이었던 우리나라 전체 인구성장률은 2000년부터 이후 10년 동안에는 약 4.36%로 감소하였다. 두 기간을 비교했을 때, 인구성장률이 낮아진 것을 비롯한 여러 인구현상들에 다양한 차이점들이 발생했지만, 이 연구에서는 무엇보다도 상당수 도시지역들에서 인구성장이 전환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즉 1990년에서 2000년까지 도시지역의 인구감소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였지만, 2000년 이후에는 상당수 도시지역들, 특히 비수도권의 중소도시들에서는 오히려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특별시와 광역시들을 제외한 77개 도시<sup>1)</sup> 중에서 경기도에 있는 모든 도시들은 인구가 증가했지만, 비수도권에서는 50개 도시 중 33 곳에서는 음(-)의 인구성장률을 기록했고, 2곳은 양(+ )의 인구성장률이었지만 전국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해당 기간 많은 비수도권 중소도시들의 인구성장이 정체, 감소된 주요한 원인은 인구이동이며, 특히 우리나라 전체 인구구조에서 에코부머(echo boomer)에 해당되는 20대와 30대 초반의 젊은 인구들이 해당 도시들을 떠나고 있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과거 해당 도시들의 인구가 성장했던 것도 인구이동 때문이었다. 1960년에 1개 특별시와 26개 시였던 우리나라 전체 도시지역은, 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 등으로 재편되기 직전인 1994년에는 1개 특별

시, 5개 직할시 그리고 68개 시로 확대되었고, 비수도권에서는 같은 기간에 24개 시에서 4개 직할시와 49개 시로 늘어났다. 이것은 산업화와 경제개발 과정에서 이촌향도로 대변되는 도시지역으로의 인구집중 때문이었고, 이 무렵 농촌을 떠난 젊은 연령층 인구 중 다수가 지방의 중소도시로 이입되었다.

이와 같이 비수도권 중소도시들이 과거의 인구증가에서 현재는 정체·감소로 전환되는 상황은 많은 선행의 연구들이 축적한 성과들을 통해 어느 정도 해석할 수 있다. 도시(large town)의 인구성장은 자연적 증가보다는 인구이동에 더 큰 영향을 받으며(Ravenstein, 1876; 1889), 인구이동은 단계적(step by step)으로 진행되며(Ravenstein, 1876; 1885), 그리고 인구이동은 이동자가 가진 특정 속성에 따라 선별적(selective)으로 이루어지고(Lee, 1966), 특히 연령 속성과 이동률 간에는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역 간 인구이동에서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확인된다는 것(권상철, 2005; 최진호, 2008; 이상림, 2009) 등이다.

하지만 비수도권 중소도시에서 인구가 증가했던 시점에서 정체·감소하는 시점까지의 시간적 범위에서의 횡단면적(longitudinal) 분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단계적 이동에 대한 추적을 개인의 생애 기간에 한정해서 할지, 가족 또는 가구의 생애로 확대해서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물론 전자에 비해 후자에서는 분석의 시간적 범위가 늘어나게 된다. 둘째, 가족·가구의 생애로 시간적 범위를 확대한다면 부모세대와 자녀세대를 구분하고, 인구이동에 있어 두 세대 간의 유

사성으로서 연령 효과(age effect), 차별성으로서 코호트 효과(cohort effect)와 기간 효과(period effect)를 함께 확인해야만 한다. 셋째, 단계적 이동에서 비수도권 중소도시가 정주체계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계층성 문제로써 비수도권 중소도시가 농촌을 떠난 인구가 최종적으로 도착한 곳인지, 아니면 최종 도착지를 향하는 중에 경유(via), 매개(intermediate)하는 역할만을 수행하는 곳이었는지를 구분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배경에서 이 연구는 ‘부모-자녀 세대에 걸쳐 진행되는 단계적 지역 간 이동(stage migration through generations)’이 진행됨을 전제로, 이것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비수도권 중소도시의 인구감소·정체 현상의 주요 원인이나 나아가 해당 도시들의 인구성장에 파급되는 과정과 영향력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개인이 아닌 가족·가구의 생애라는 시간적 범위에서 비수도권 중소도시들에서 과거 인구증가는 농촌에서 태어난 부모 세대가 20대 연령에서 선별적 이동과정에서 이입되어, 해당 도시들에서 독립, 취업 및 가구를 형성하고 자녀 세대를 출산한 사회적, 자연적 인구증가의 결과이며, 현재 인구정체

와 감소는 그곳에서 출생, 성장한 자녀 세대들이 20대 연령에 이르러 수도권 또는 대도시 지역으로 선별적 이동, 이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전제하였다. 그리고 ‘부모의 출발지(O)로서 농촌’→‘부모의 목적지(D)이자 자녀의 출발지(O)로서 비수도권 중소도시’→‘자녀의 목적지(D)로서 수도권 또는 대도시’로 단계적 인구이동이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세대가 20대 및 30대 초반에 선별적 이동이 이루어지는 연령 효과, 그렇지만 세대 간에 이동 출발지(O)와 목적지(D)의 차이라는 코호트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해당 도시들의 인구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가정한 것이다. 이런 가정을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부모 세대를 베이비 부머로, 자녀 세대를 에코 부머 세대로 설정하고, 우선 부모와 자녀 세대에 걸쳐 단계적 지역 간 이동이 진행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이것을 도시의 인구성장 변화, 변천과 연계시켜 파악, 이해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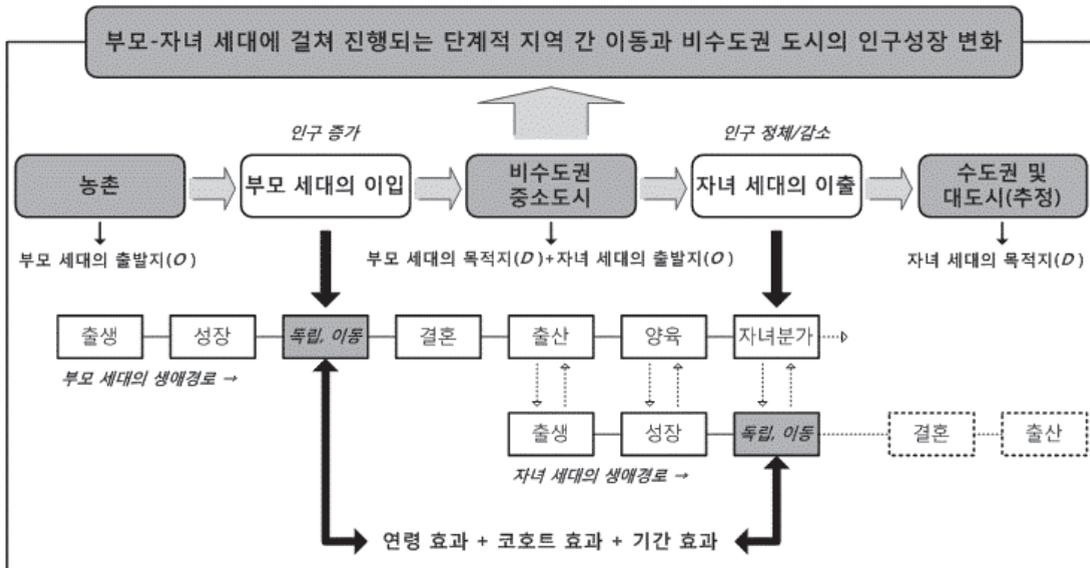


그림 1. 비수도권 도시의 단계적 지역 간 이동과 인구성장

## 2. 단계적 인구이동에 관한 논의 검토와 세대 구분

이 연구가 설정한 단계적 인구이동이 세대에 걸쳐 진행되고, 그것이 비수도권 중소도시 인구성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실증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구이동의 단계성에 대한 세밀한 규정과 부모와 자녀 세대 간을 구분할 수 있는 조작적 정의와 개념에 대한 검토가 우선된다.

### 1) 단계적 인구이동: step by step, step-wise, stage 등 혼재된 용어와 의미

단계적 이동의 개념은 Ravenstein이 1876년과 1885년, 1889년에 걸쳐 발표한 일련의 논문들에서 제시한 ‘인구이동의 법칙(The laws of migration)’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그는 1876년 논문에서 대체로 도시의 인구증가는 농촌보다 빠르게 이루어지고, 이것은 유입자들(immigrants) 때문이라고 전제하였다. 그리고 도시로의 유입자들은 가까운 주변 지역에서 몰려든 것이며, 유입자들이 떠난 곳에는 보다 먼 곳 출신의 유입자들로 채워지고, 이러한 과정은 당시 성장하는 도시들이 가진 매력적인 힘이 영국의 가장 외진 곳까지 파급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1885년 논문에 ‘단계적(step by step)’이라는 단어를 해당 문장에 추가했다. 이후 Ravenstein이 제시한 이 개념을 검증하고자 했던 몇몇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Withers and Watson(1991)에 따르면 19세기의 독일을 사례로 농촌(farm)에서 마을(village)로, 마을에서 소도시(town)로, 소도시에서 도시(city) 그리고 도시에서 대도시(metropolis)로 인구이동의 흐름이 ‘사다리꼴(staffelweise)’로 진행된다고 제시한 Weber(1899)의 연구, 19세기 중반 이후 영국의 센서스 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이동에서 단계성을 검증했던 Lawton(1955), Saviile(1957), Anderson(1971) 등의 연구가 있었다. 그런데 Ravenstein이 말한 단계적 이동은 센서스 자료에 기초해서 도시의 인구분포를 변화를 관찰한 것으로,

이동의 원인 및 도시 계층성(urban hierarchy)과 결합된 것이 아니었다. 즉 대도시로의 유입자는 도시 출신이 많고, 도시로의 유입자는 소도시 출신이 많으며, 소도시로의 이동자 상당수는 주변 농촌 출신이다 정도로 묘사한 것으로 농촌 출신의 이동자가 농촌→소도시→...→대도시 등으로 계층적 단계를 따라 이동한다고 명확하게 밝힌 것도 아니고, 이동에 따른 사회적 조정 과정의 공간적 표명(manifestation)을 탐색한 것도 아니었다. 이것은 단순히 일련의 이동단계에 관한 공간패턴을 묘사한 것으로, Conway(1980)는 이를 공간적 측면의 단계적 이동(spatial step-wise migration)이라고 칭하였다. 이후 도시 계층성, 특히 상향적 정주체계로의 단계적 이동(hierarchical step-wise migration)에 관한 논의는 Riddell and Harvey(1972), Hudson(1975) 등에 의해 본격화되었다. Riddell and Harvey는 단계적 이동을 ‘한 개인이나 집단이 농촌에서 출발하여 중간 중심지들(intermediate centers)을 경유하면서 점차 상위 계층의 결절지, 중심지로 이동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원래 출발지인 농촌에서 최종 목적지인 대도시까지 정주체계 계층을 따라 단계적으로 여러 중심지들을 나열했을 때, 하위 계층의 중심지들은 물리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이 농촌과 유사한 전통적(tradition)인 것이고 반대로 상위 계층일수록 근대적(modern)임을 전제하고, 농촌 출신의 이동자들은 점진적으로 상향 중심지들로 이동하고 그곳에서 생활을 조정하고 다음 이동에 필요한 것들을 획득하고, 최종 목적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학습과 동시에 불확실성을 제거하게 된다고 제시하였다.

그런데 관련된 경험적 연구들이 이루어졌지만, 단계적 이동에 대한 개념적 그리고 방법론적으로 명확하고 합의된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여러 연구자들이 각기 다른 조작적 정의와 용어를 사용하면서 혼선이 나타났고, 은연중에 공간과 계층이 결합된(hierarchical-cum-spatial) 것을 단계적 이동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나타났다(Conway, 1980). Ravenstein(1985)이 ‘step by step’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래, Weber(1899), Lawton(1955), Riddell and Harvey(1972) 등은 ‘step-wise migration’으로, Hudson(1975)은 ‘hierarchical migration’, Hägerstrand(1957)와 Olsson(1965)

는 ‘chain migration’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단계적 이동을 의미하였다. 그리고 Pryor(1969)는 ‘single step migration’과 ‘complex step migration’으로, Skeldon(1977)은 ‘stage migration’과 ‘step migration’으로 구분한 조작성 정의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용어와 조작성 정의들이 존재하는 것은 연구자료와 방법론, 그리고 (시간적) 스케일 차이에 기인한 것이다. 센서스 등을 통한 집계(aggregate level)자료와 개인이나 가족의 이동 이력, 역사, 회고 등에서 획득되는 미시(micro, disaggregate level)자료로 구분하면, 전자는 분석의 중심을 장소에 두고 여러 시점의 종단면 자료들을 비교해 가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관찰해서 단계적 이동을 추론할 것이고, 후자는 이동자를 중심에 두고 횡단면적으로 그들의 이동을 추적하게 될 것이다. 또 전자에서는 불가능한 이동의 원인과 동기, 이동자들의 단계별 사회·경제·문화적 적응과 변화 등에 대한 분석도 후자에서는 가능하다. 그리고 단계적 이동을 ‘출발지 농촌( $O_r$ )→중간 경유지 도시( $D_c$  및  $O_c$ )→최종 목적지 대도시·수도( $D_{mp}$ )’로 도식화했을 때, 특정 개인·가족 등의 인구집단이  $O_r \rightarrow D_c \rightarrow D_{mp}$ 로 생애경로(life-path) 동안 순차적 이동하는 것인지, 아니면  $O_r \rightarrow D_c$ 와  $O_c \rightarrow D_{mp}$ 의 이동자 집단이 동일 또는 별개의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자료와 관련된다.

선행의 연구들 대부분은 집계자료를 이용하였고, 따라서 특정 인구집단이 지속적으로  $O_r \rightarrow D_c \rightarrow D_{mp}$ 로 단계적 이동을 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O_r \rightarrow D_c$ 와  $O_c \rightarrow D_{mp}$ 를 구분, 탐색해서 추론할 따름이었다. 그렇기에 Pryor(1969)는 앞의 단계적 이동을 ‘single step migration’, 뒤의 단계적 이동에 대한 추론을 ‘complex step migration’으로 구분했지만 뒤의 내용 분석에 중심을 두었고, Skeldon(1977)도 유사하게 ‘step migration’과 ‘stage migration’로 나누었지만 마찬가지로 stage만을 분석했다<sup>2)</sup>. 그리고 Hägerstrand(1957)는 ‘chain migration’이라는 용어를 통해 부모세대가 농촌에서 작은 도시들로 이동해 왔음을 전제하고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젊은 인구가 정주 체계의 상위계층 도시로 점차 이동하는 것을 단계적 이동이라고 추론한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단계적 이동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 및 조작성 정의에서 기인한 혼란들을 지적한 Conway(1980)는 ‘step-wise’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개인 또는 가구가 중간 단계를 경유하는 이동경로를 통해 점진적으로 전통적 농촌에서 근대적 도시환경으로 문화적응(acculturation)을 수용해 가는 인간의 공간적 행태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분석자료와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이동자의 생애경로 역사들을 조사(investigation), 설문(survey)한 자료를 가지고, 미시적 수준에서 분석할 것을 제시하였다. 물론 이 주장을 따른다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동 원인과 동기, 이동 단계별 사회·경제·문화적 것들에 대한 이동자의 적응과 변화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 이 연구와 관련해서 단계적 이동의 시간적 스케일이 세대 내(intra-generation)인지, 세대 간(inter-generation)인지를 식별하거나, 부모-자녀 등 세대 간 연계(linkage)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본 연구도 자료문제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고, ‘인구주택총조사’와 ‘주민등록인구’ 등 집계자료에 의존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가설인 ‘부모-자녀 세대에 걸쳐 진행되는 단계적 지역 간 이동’에서의 ‘단계’로 번역한 것의 실제 의미는 ‘step-wise’가 아닌 ‘stage’, ‘complex step’에 해당됨을 밝혀 둔다.

## 2) 베이비 부머와 에코 부머 세대의 구분

현재 비수도권 중소도시의 인구이동, 특히 이출이 두드러지는 연령집단은 5세 연령계급을 기준했을 때 20-24세, 25-29세 및 30-34세 집단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들을 197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에 태어난 에코 부머 세대로 부르고 있으며, 그 의미를 베이비 부머들의 자녀 세대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적 통칭에 기반한 세대 구분을 분석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기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 에코 부머, 베이비 부머 세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작성 정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세대의 개념을 출생 코호트(birth cohort)와 연령 집단(age group)으로 한정(Ryder, 1965; Plane, 1992; 권태환·김두섭, 2007)하였다. 둘째, 에코 부머 세대는 베이비 부머 세

대의 자녀 세대를 뜻하는 것으로 엄밀하게는 부모의 출생 시점이 기준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거시 자료를 통한 분석에서 현실적으로 이를 구분해 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Foot and Stoffman(1996)이 캐나다를 사례로 1947-1966년에 태어난 인구를 붐 세대, 1967-1979년생을 버스트(bust) 세대 그리고 1980-1995년생을 에코 세대로 명명한 것처럼 출생한 시점·시기를 구분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셋째, 우리 사회에서 베이비 붐 및 에코 부머 세대 출생의 시간적 범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만<sup>3)</sup>, 이 연구에서는 베이비 부머 세대는 1955-1963년생, 에코 부머 세대는 1979년에서 1992년까지 태어난 인구집단이라는 통계청의 기준(통계청, 2010; 2012b)에 원칙적으로 동의, 수용한다. 그런데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과거 그리고 현재 인구자료 중 상당수가 5세 단위로 측정,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분석을 위해 베이비 부머 및 에코 부머 세대를 각각 1956-1965년생과 1979-1993년생으로 조정하여 설정하였다.

도시들이 속한 전라북도를 살펴보면, 광역시·도 단위에서 대표적인 인구이출 지역이며 주민등록자료에 기초한 ‘국내인구이동통계’에서 전라북도는 1970년부터 2013년까지의 누적 순이동자수가 -1,883,627명이었고, 해당 기간 동안 2011년 한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음의 순이동자수를 기록했다. 그리고 전라북도 도시 중 전주, 군산, 익산(이리)은 1949년에 시로 승격되었고, 정읍(정주), 남원은 1981년, 그리고 김제는 1989년에 승격되는 등 1990년대 중반까지 인구가 증가했다. 하지만 1995년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개편된 이후 최근까지에는 전주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감소하고 있으며, 이 중 정읍·남원·김제는 1995년에서 2010년까지 약 20% 내외의 감소율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전라북도와 도내 6개 시가 가지는 중소도시로서 특성들, 인구규모와 그 증감 및 변화를 토대로 이 연구의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였다.

### 3) 사례 지역

이 연구의 사례지역은 전라북도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등 6개 시지역이다. 먼저 해당

### 3. 부모 세대, 베이비 부머의 지역 간 인구이동

부모 세대, 즉 1956년에서 1965년까지 태어난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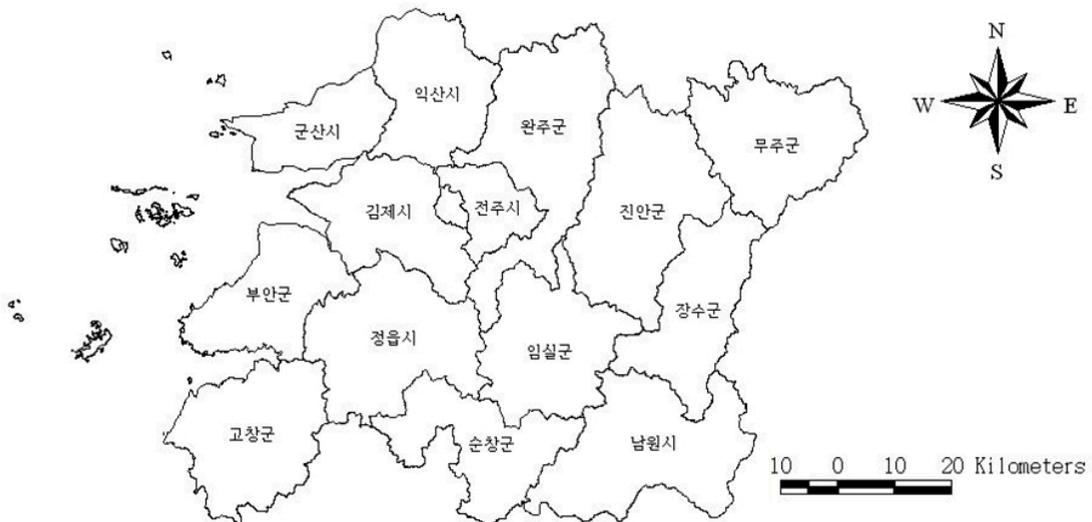


그림 2. 사례지역 행정구역 지도

집단의 지역 간 인구가동량, 방향성 및 공간적 패턴을 실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특히 이 연구가 목표하는 단계적 이동을 확인,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동의 첫 출발지(O)와 밀접하게 관련된 출생 통계자료가 필요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1960년 이전 출생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인구추계, 인구동태 자료가 없고(통계청, 2012b), 몇몇 연보 등의 자료에서 획득하더라도 그 신뢰성이 상당히 낮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시계열적인 O-D 자료도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획득할 수 있고, 몇 차례의 행정구역 개편·조정도 실증을 어렵게 하는 이유가 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인구센서스에서 제공되는 ‘현거주지/연령/5년 전 거주지별 이동인구’ 및 ‘현거주지/연령/출생지별 이동인구’ 자료를 기초로 베이비 부머 세대의 지역 간, 단계적 이동을 추론하고자 한다.

**1) 현재 거주지와 5년 전 거주지 자료를 통한 추론**

출생 통계자료를 대신해서 1960년 이후의 인구센서스 자료를 활용해서 1956-1960년생과 1961-1965년생의 전라북도 전체 및 도시지역 내 분포변화를 추적하면 표 1, 표 2와 같다. 먼저 전라북도 전체에서 두 연령집단의 분포변화를 살펴보면, 출생 당시에는

모두 약 42만 명 이상의 규모로 추정되지만, 2010년에는 1/3 수준인 약 13만 명 정도로 축소되었다. 그리고 전라북도 도시지역에서는 두 연령집단이 각각 56,240명과 56,897명 정도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2010년에는 90,031명과 103,180명으로 늘었다. 그런데 이는 도시지역의 범위가 전주·군산·이리시에서 정주·남원·김제시가 추가 승격되면서 확대된 것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10년 각 도시의 동부(洞部)와 유사한 공간적 범위인 1970년 전주·군산·이리시와 정주·남원·김제읍의 인구를 서로 비교하면, 1956-1960년생 연령집단은 약 4.3%, 1961-1965년생 집단은 약 29.3% 증가하였다.

한편 두 인구집단이 연령과 연관된 선별적 이동, 즉 15-19세→20-24세, 20-24세→25-29세 및 25-29세→30-34세의 분포변화를 6개 도시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도시에서 15-19세→20-24세와 20-24세→25-29세에서 규모가 축소되고, 25-29세→30-34세에서는 다소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분포변화에 대한 5년 간격의 시계열적 추적만으로는 전라북도 도시지역이 농촌 출신의 젊은 인구집단을 흡인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즉 단계적 이동의 매개 지역이라고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표 1. 전라북도 도시지역 1956-1960년 출생 집단의 분포 변화

(단위: 명)

연도	연령	전라북도 합계	도시지역 소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연도별 도시지역 인구추정
1960	0-4세	426,318	56,240							-전라북도 시부 인구
1966	6-10세	392,549	60,109	33,103	15,185	11,821				-전주/군산/이리시 인구
1970	10-14세	358,622	86,308	38,561	15,625	13,088	7,488	6,455	5,091	-전주/군산/이리시 인구 -정주/남원/김제읍 인구
1975	15-19세	269,064	95,977	44,408	20,602	17,599	6,294	5,841	1,233	
1980	20-24세	208,008	90,017	40,001	17,451	17,831	5,887	5,264	3,583	
1985	25-29세	163,594	90,254	39,073	17,271	19,570	6,202	4,984	3,154	-'81년 정주/남원시 승격
1990	30-34세	149,976	98,822	43,992	19,647	19,095	6,519	5,353	4,216	-'89년 김제시 승격
1995	35-39세	145,461	103,003	48,904	19,250	20,926	5,640	4,803	3,480	-도농복합형태의 시 개편 -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시의 동지역 인구
2000	40-44세	142,390	102,655	51,354	18,472	19,980	5,415	4,256	3,178	
2005	45-49세	135,364	97,605	49,717	16,997	18,782	5,069	3,984	3,056	
2010	50-54세	133,760	90,031	47,922	12,807	17,594	5,021	3,694	2,993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인구주택총조사

표 2. 전라북도 도시지역 1961-1965년 출생 집단의 분포 변화

(단위: 명)

연도	연령	전라북도 합계	도시지역 소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비고
1966	1-5세	421,685	56,897	31,358	14,297	11,242				-전주/군산/이리시 인구
1970	5-9세	382,024	79,801	34,752	14,297	11,251	7,369	6,927	5,205	-전주/군산/이리시 인구 -정주/남원/김제읍 인구
1975	10-14세	355,508	91,299	41,313	18,314	14,875	7,523	7,106	2,168	
1980	15-19세	258,986	113,377	49,085	19,398	22,760	9,721	8,108	4,305	
1985	20-24세	206,490	103,980	45,967	18,145	23,911	7,043	5,323	3,591	-'81년 정주/남원시 승격
1990	25-29세	151,144	98,963	44,407	17,940	19,516	7,082	5,510	4,508	-'89년 김제시 승격
1995	30-34세	140,296	101,859	46,718	18,459	22,184	5,733	5,065	3,700	-도농복합형태의 시 개편 -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시의 동지역 인구
2000	35-39세	144,973	108,203	52,685	18,831	22,436	6,027	4,728	3,496	
2005	40-44세	136,821	104,600	53,384	17,086	20,955	5,651	4,383	3,141	
2010	45-49세	136,916	103,180	53,870	17,141	19,803	5,475	3,944	2,947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인구주택총조사

이처럼 분포변화라는 정태적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이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인구센서스의 '현 거주지/연령/5년 전 거주지별 이동인구'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해당 자료는 1970년 인구센서스부터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대한 5-15% 표본조사로서 제공되며, 출발지(O)로서 5년 전 거주지, 도착지(D)로서 현 거주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O와 D에 대한 정보는 시·군·구 단위가 아닌 시도별 시부·군부에 관한 것이고 이것도 조사시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따라서 1970년과 1975년에는 이입에 관한

것만 확인할 수 있고, 이후에는 이입과 이출 모두 확인할 수 있다. 또 시부와 군부로만 구분된 정보이기에 조사시점별로 시 승격이나 도농복합형태의 시 출범 등으로 인하여 시부에 해당되는 공간적 범위에도 차이가 있으며, 이를 표 3에 정리하였다.

전라북도 도시지역에서의 인구이입은 현 거주지가 전라북도 시부인 경우로서 이동의 도착지가 되고, 반대로 인구이출에서는 5년 전 거주지가 전라북도 시부인 경우가 출발지에 해당된다. 그리고 그림 3과 같이 현재 전라북도 시부로 이동, 거주하는 인구에 대해서

표 3. 인구센서스 연도별 '현거주지/연령/5년 전 거주지별 이동인구' 자료의 O-D 구분

연도	현 거주지(D) 구분	5년 전 거주지(O) 구분	조사시점별 해당 전라북도 시부
1970	시도별 시부/군부	같은 시도 시부/군부 다른 시도 시부/군부	- 전주·군산·이리시
1975			
1980	시도별 시부/군부	시도별 시부/군부	- 전주·군산·이리·정주·남원시
1985			- 전주·군산·이리·정주·남원·김제시
1990			
1995	시도별 동부/읍부/면부	시도별 시부/군부	- 전주시
2000			- '도농복합형태의 시'로서 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시
2005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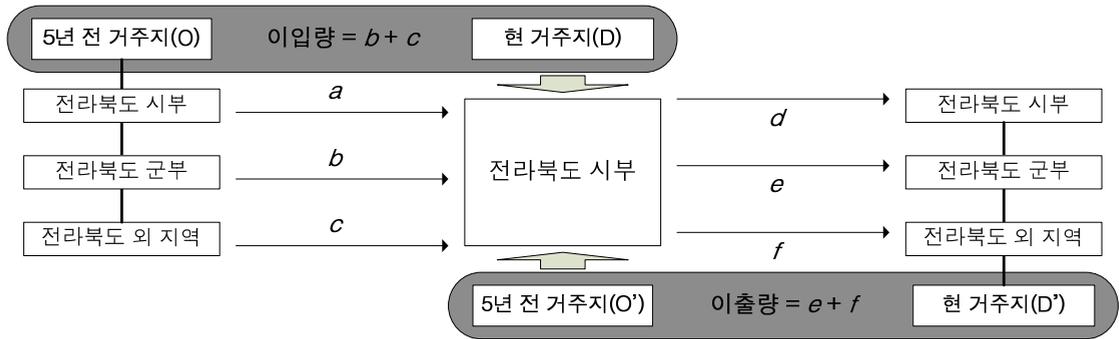


그림 3. '현거주지/연령/5년 전 거주지별 이동인구' 자료를 통한 인구가입과 이출 추정방법

표 4. 1970~1995년 베이비 부머 세대의 전라북도 시부에서 이입·이출 추정(현 거주지-5년 전 거주지 기준)

(단위: 명, %)

연도	출생 집단	연령	전라북도 시부에서 이출 인구						전라북도 시부로 이입 인구							
			전체 이출자	전북 시부로		전북 군부로		전북 이외로		전체 이입자	전북 시부에서		전북 군부에서		전북 이외에서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70년	56-60년	10-14세								13,084	628	4.8	9,842	75.2	2,614	20.0
	61-65년	5-9세								10,713	639	6.0	6,759	63.1	3,315	30.9
'75년	56-60년	15-19세								20,535	1,168	5.7	15,586	75.9	3,781	18.4
	61-65년	10-14세								11,128	807	7.3	7,634	68.6	2,687	24.1
'80년	56-60년	20-24세	9,401	1,020	10.8	742	7.9	7,639	81.3	24,794	1,020	4.1	18,471	74.5	5,303	21.4
	61-65년	15-19세	18,154	1,466	8.1	1,872	10.3	14,816	81.6	19,756	1,466	7.4	11,291	57.2	6,999	35.4
'85년	56-60년	25-29세	27,853	3,749	13.5	2,785	10.0	21,319	76.5	28,091	3,749	13.3	12,161	43.3	12,181	43.4
	61-65년	20-24세	24,905	3,122	12.5	1,865	7.5	19,918	80.0	24,744	3,122	12.6	4,719	19.1	16,903	68.3
'90년	56-60년	30-34세	20,292	6,054	29.8	1,706	8.4	12,532	61.8	26,390	6,054	22.9	8,624	32.7	11,712	44.4
	61-65년	25-29세	28,209	6,698	23.7	2,289	8.1	19,222	68.1	30,068	6,698	22.3	11,134	37.0	12,236	40.7
'95년	56-60년	35-39세	18,167	5,851	32.2	968	5.3	11,348	62.5	22,215	5,851	26.3	3,535	15.9	12,829	57.7
	61-65년	30-34세	27,905	7,521	27.0	1,483	5.3	18,901	67.7	29,584	7,521	25.4	3,514	11.9	18,549	62.7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인구주택총조사

주: 비율은 전체 이출자와 이입자에 대한 것임.

5년 전 거주지를 전라북도 시부와 군부, 그리고 전라북도 외 지역으로 구분하였고, 마찬가지로 5년 전 전라북도 시부에 거주했지만 현재는 이곳에서 이동한 인구도 같은 범주로 구분하였다. 이 때 그림 3의 a와 d는 동일한 값이기에, 전라북도 시부로 이입한 인구수는  $b+c$ 이고, 전라북도 시부에서 이출한 인구수는  $e+f$ 가 된다. 이상을 기초로 1970년부터 1995년까지 베이비 부머 세대의 전라북도 시부로의 이입, 시부에

서 이출을 5년 단위로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 2) 현재 거주지와 출생지 자료를 통한 추론

'현거주지/연령/5년 전 거주지별 이동인구' 자료는 조사시점과 그로부터 5년 전 거주지, 예를 들면 1990년 센서스는 1990년 11월 1일 당시 거주지와 1985년 11월 1일에는 어디에 살고 있었는지만을 조사한 것이

다. 따라서 인구이동의 방향성에 대해 어느 정도의 추론은 가능하지만, 해당 기간 이내에 발생한 인구이동이 누락될 수 있고 정확한 누적 이동량 및 단계·귀환·순환과 같은 이동유형을 판단할 수는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현거주지/연령/출생지별 이동인구’ 자료를 활용한 분석을 추가로 진행하였다. 물론 해당 자료도 앞의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출생지가 이동의 출발지(O) 정보로서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도 1970년 인구센서스부터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대한 5-15% 표본조사로서 제공되고, 출발지(O)는 출생지이며 도착지(D)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O와 D의 구분은 표 5와 같이 조사시점별로 변동되었는데, 이로 인해 1980년 자료로는 전라북도 시부의 이입과 이출에 대한 분석이 불가능하고, 1985년 자료로는 이출만 그리고 1990년 이후부터 이출과 이입 모두 분석할 수 있다.

전라북도 시부의 인구이출은 출생지(O)가 전라북도 시부인 인구에 대해 현 거주지(D)를 전라북도 시부와 군부, 전라북도 이외로 구분하였고, 반대로 인구이입은 현 거주지가 전라북도 시부인 것을 도착지로 간주하고 출발지는 마찬가지로 전라북도 시부와 군부, 전라북도 이외로 구분했다. 베이비 부머 세대의 선별적 인구이동과 관련된 1985년, 1990년, 1995년 세 시점에서 전라북도 시부에서의 이출과 이입을 분석, 정리한 것이 표 6이다. 해당 표를 살펴보면, 세 시점별로 출생지가 전라북도 시부인 인구 그리고 현재 거주하는 곳이 전라북도 시부인 인구의 규모가 다르고 점차 증가하는 것이 확인된다. 이것은 시부에 해

당하는 행정구역 범위의 변동 때문으로 1985년의 시부는 전주·군산·이리·정주·남원시이고, 1990년은 김제시가 추가된 것, 그리고 1995년에는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확대되면서 해당 시의 읍면지역 인구들도 시부로 편입된 것이다. 이는 앞의 표 4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농촌, 군부 출신의 베이비 부머 세대가 전라북도 시부로 단계적 이동을 진행했는지를 분석함에 있어 가장 근사한 공간적 범위는 1990년 자료가 될 수 있다.

1990년 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라북도 시부에서 태어난 56-60년생, 61-65년생 인구집단 중에서 각각 55.4%, 53.9%가 전라북도 이외 지역으로 이출하였고, 42.0%와 44.0%만이 그대로 시부에 거주하고 있었다. 반면 전라북도 시부로 이입한 인구는 전라북도 군부 출생이 39.6%와 38.0% 그리고 전라북도 이외 출생이 17.5%와 16.7%를 차지했다. 즉 1990년 당시 전라북도 시부에 거주한 30-34세(56-60년생)과 25-29세(61-65년생) 인구집단 중 약 40% 정도인 39,050명과 37,256명은 전라북도 농촌에서 태어난 이들이다.

한편 전라북도 농촌에서 태어난 베이비 부머 세대 중 전라북도 시부로 이동한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인구는 어디에 거주 또는 이동한 것일까? 그리고 시부에서 태어났지만 전라북도 이외로 이동한 인구들의 주요 도착지는 어디일까? 1990년을 기준으로 출생지(O)가 전라북도 시부, 군부였던 56-60년생, 61-65년생의 분포를 확인하여 이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표 7과 같이 전라북도 군부에서 태어난 1956-1960년 및 1961-1965년 출생집단이 1990년 당시 어디로

표 5. 인구센서스 연도별 ‘현거주지/연령/출생지별 이동인구’ 자료의 O-D 구분

연도	현 거주지(D) 구분	출생지(O) 구분
1970	시도별 시부/군부	시도별 시부/군부
1975	미조사	
1980	전국 단위의 시부/군부 및 시도	전국 단위의 시부/군부 및 시도
1985	전국 단위의 시부/군부 및 시도	시도별 시부/군부
1990	시도별 시부/군부	시도별 시부/군부
1995	시도별 시부/군부/구부	시도별 시부/군부/구부

표 6. 1985-1995년 베이비 부머 세대의 전라북도 시부에서 이입·이출 추정(현 거주지-출생지 기준)

(단위: 명, %)

연도	출생 집단	연령	전라북도 시부에서 이출 인구						전라북도 시부로 이입 인구							
			출생지 전북시부 인구	현거주지 전북 시부		현거주지 전북 군부		현거주지 전북 이외		현거주지 전북시부 인구	출생지 전북 시부		출생지 전북 군부		출생지 전북 이외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85년	56-60년	25-29세	85,319					48,058								
	61-65년	20-24세	88,816					34,747								
'90년	56-60년	30-34세	100,740	42,283	42.0	2,608	2.6	55,849	55.4	98,627	42,283	42.9	39,050	39.6	17,294	17.5
	61-65년	25-29세	100,955	44,406	44.0	2,172	2.2	54,377	53.9	98,030	44,406	45.3	37,256	38.0	16,368	16.7
'95년	56-60년	35-39세	217,845	78,246	35.9	2,581	1.2	137,018	62.9	121,616	78,246	64.3	21,199	17.4	22,171	18.2
	61-65년	30-34세	220,675	76,341	34.6	2,499	1.1	141,835	64.3	118,056	76,341	64.7	20,363	17.2	21,352	18.1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인구주택총조사

주: 비율은 출생지가 전북 시부인 인구와 현 거주지가 전북 시부인 인구에 대한 것임.

이동, 거주하고 있었는지를 정리하면, 농촌에서 전라북도 시부로 이동한 인구규모가 각각 15.7%, 14.7%였던 것에 비해서 농촌에서 곧바로 정주체계의 상위도시들, 수도권이나 특별·직할시로의 이동규모가 훨씬 컸다. 구체적으로는 전라북도 농촌에 태어난 베이비 부머 세대 중에서 25-29세 및 30-34세까지 여전히 농촌에 거주했던 인구는 약 1/6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이동을 했다. 이동의 도착지에 대해 먼저 지역별로는 열 명 중에서 세 명꼴로 서울, 또는 두 명 중 한 명꼴로 서울·인천·경기의 수도권으로 이동한 것이 두드러진다. 그리고 정주체계 상으로는 중소도시보다 상위체계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특별시와 직할시로 40% 이상이 이동했다.

같은 표에서 전라북도 시부에서 태어나서 1990년 전라북도 이외 지역으로 이동한 인구들의 주요 분포 지역을 확인하면, 상당수가 군부 출생과 유사하게 수도권 및 특별·직할시로 이동하여 거주하였다. 그리고 1990년 센서스의 '현거주지/연령/출생지별 이동인구' 자료를 활용할 때, 전라북도의 시부와 군부, 전라북도 이외 등 세 지역 간의 베이비 부머 세대 이동량을 그림 4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이처럼 베이비 부머 세대의 지역 간 이동량을 추정했을 때, 무엇보다 전라북도 시부와 군부 출생자들 모두에서 전라북도 이외 지역으로의 이출이 두드러진다. 군부 출생자들

에서는 무려 342,057명, 시부 출생자들 중 110,226명이 전라북도를 떠나 다른 시도에 거주하였는데, 이는 전체 출생자 대비 약 68.1%, 54.6%이다. 한편, 전라북도 군부에서 태어나 전라북도 시부에 거주하는 인구는 76,306명으로 전체 출생자 대비 15.2% 수준으로 전라북도 이외 지역으로 이출한 규모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인구수는 전라북도 시부에서 태어나서 다른 시도로 이출한 인구 규모에 육박하는 것이다. 같은 자료에서 지역 간 순이동자 수를 살펴보면, 전라북도 시부와 전라북도 이외 지역 간의 순이동자 수는 -76,564명이었고, 전라북도 시부와 군부 간의 순이동자 수는 71,526명이었다. 전라북도 도시 출생했지만 타 시도로 떠난 베이비 부머 규모만큼 전라북도 농촌 출생자들이 이입했다. 이들이 1990년 당시 전라북도 시부에 거주했던 베이비 부머 세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8.8%를 차지할 정도였고, 따라서 부모 세대에서 농촌에서 중소도시로의 단계적 이동이 진행되었다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들의 연령과 생애단계를 감안한다면 이들 자녀 세대로서 에코 부머 세대들은 전라북도 시부에서 태어나서 성장했을 개연성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7. 1990년 전라북도 군부와 시부 출생 베이비 부머 세대의 거주지 분포(현 거주지-출생지 기준)

(단위: 명, %)

지역		전라북도 군부 출생의 1990년 거주지				전라북도 시부 출생의 1990년 거주지			
		56-60년생(30-34세)		61-65년생(25-29세)		56-60년생(30-34세)		61-65년생(25-29세)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전국 합계		248,257	100.0	254,300	100.0	100,740	100.0	100,955	100.0
전국 시부		190,856	76.9	194,349	76.4	92,810	92.1	93,552	92.7
전국 군부		57,401	23.1	59,951	23.6	7,930	7.9	7,403	7.3
전북	시부	39,050	15.7	37,256	14.7	42,283	42.0	44,406	44.0
	군부	41,250	16.6	42,944	16.9	2,608	2.6	2,172	2.2
전북 거주 소계		80,300	32.3	80,200	31.5	44,891	44.6	46,578	46.1
수도권	서울	77,816	31.3	81,727	32.1	24,972	24.8	24,929	24.7
	인천	10,272	4.1	11,094	4.4	3,556	3.5	3,492	3.5
	경기	38,986	15.7	41,939	16.5	13,571	13.5	13,608	13.5
수도권 거주 소계		127,074	51.2	134,760	53.0	42,099	41.8	42,029	41.6
특별/직할시	서울	77,816	31.3	81,727	32.1	24,972	24.8	24,929	24.7
	부산	7,409	3.0	7,821	3.1	2,161	2.1	2,027	2.0
	대구	1,815	0.7	2,004	0.8	559	0.6	399	0.4
	인천	10,272	4.1	11,094	4.4	3,556	3.5	3,492	3.5
	광주	4,999	2.0	4,423	1.7	1,332	1.3	1,191	1.2
	대전	5,901	2.4	4,967	2.0	1,418	1.4	1,177	1.2
특별/직할시 거주 소계		108,212	43.6	112,036	44.1	33,998	33.7	33,215	32.9
기타 도	강원	2,141	0.9	1,947	0.8	752	0.7	635	0.6
	충북	1,413	0.6	1,550	0.6	530	0.5	600	0.6
	충남	3,830	1.5	3,276	1.3	1,460	1.4	1,336	1.3
	전남	4,507	1.8	4,253	1.7	2,382	2.4	1,927	1.9
	경북	2,350	0.9	2,596	1.0	840	0.8	764	0.8
	경남	6,064	2.4	6,194	2.4	2,099	2.1	1,973	2.0
	제주	454	0.2	309	0.1	217	0.2	309	0.3
기타 도 거주 소계		20,759	8.4	20,125	7.9	8,280	8.2	319	0.3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인구주택총조사

주: 비율은 전국 합계에 대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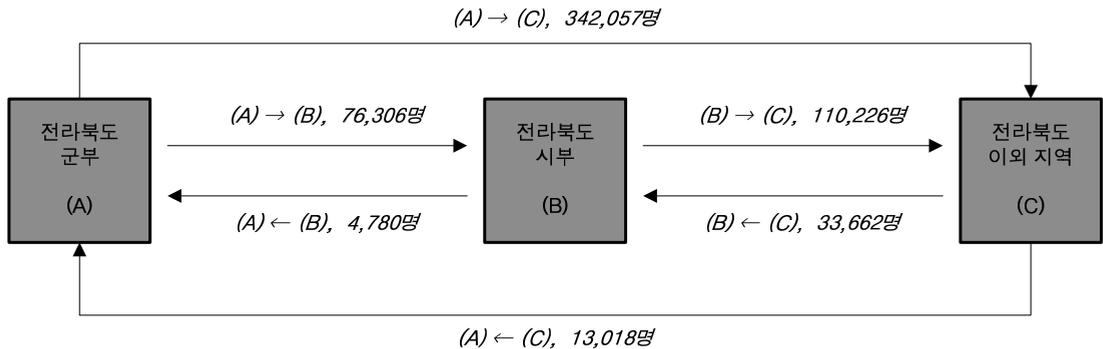


그림 4. 1990년 '현거주지/출생지' 자료를 통한 전라북도 베이비 부머 세대의 지역 간 이동량 추정

## 4. 자녀 세대, 에코 부모의 인구이동

### 1) 에코 부모 세대의 출생과 성장

인구동태통계 중 출생신고를 기준으로 전라북도에서 1979년부터 1993년까지 태어난 에코 부모 세대는 약 51만 명 정도로서, 그 규모를 부모 세대(1956-1965년생)와 비교하면 약 2/3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규모를 연 평균으로 비교하면 베이비 부모 세대가 한 해 평균 약 8만 5천명 태어났던 것으로 추정되는 것에 비해, 에코 부모 세대는 훨씬 못 미치는 약 3만 4천명 안팎에 불과하다. 그리고 1979년생은 53,666명이 태어났었지만, 해마다 점차 수는 줄어들어 1992년 및 1993년생은 25,567명과 25,413명이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 출산력이 매우 빠르게 감소하였음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한편 에코 부모 세대의 출생지를 도시와 농촌, 즉 시부와 군부를 구분하면 1979년생 중 군부에서 태어난 규모가 시부에 비해 약 2.8배 많았지만, 이후 1988년에는 군부와 시부의 출생아수가 비슷해졌고, 1993년에는 오히려 시부가 군부에 비해 그 규모가 약 2.2배 커졌다. 그런데 출생 당시와 이후 그리고 현재 행정구역에 상당한 변동이 있었기에 1995년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재편된 이후 현재까지의 시군 경계를 기준으로 표 9와 같이 재정리하였다. 이는 에코 부모 세대가 연령과 관련된 선별적 이동을 진행할 시점이 대략 2000년 무렵인데, 이 때 행정구역 경계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또한 분석에 필요한 자료들도 이에 맞춰 시부와 군부, 또는 동부·읍부·면부 등의 경계로 구분된 것도 고려하였다.

출생 시점 이후 에코 부모 세대의 분포 그리고 이동에 대해서는 '출생신고'자료와 연계성이 높고, 인구센서스에 비해 시점 선택이 비교적 수월할 '주민등록인구'자료를 이용하였고, 에코 부모 세대 출생연도의 범위가 길기 때문에 5세 간격으로 세분하여 추적하였다.

전라북도에서 태어난 1979-1983년생, 1984-1988

년생 그리고 1989-1993년생 세 가지 연령집단이 각각 10-14세 연령에 도달했을 때부터 현재까지의 분포 변화를 표 10에서 정리하였다. 전라북도 전체에서 살펴보면, 241,586명 태어났던 1979-1983년생은 2013년에는 절반 수준인 121,636명으로 규모가 축소되었고, 1984-1988년생은 146,022명에서 98,854명으로, 1989-1993년생은 122,819명에서 118,776명으로 축소되었다. 그리고 각 출생집단의 연령별 분포와 증감을 살펴보면, 출생 이후 10-14세 연령에 도달했을 때 군 지역에서는 큰 규모로 감소했지만, 도시 지역은 반대로 크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후 연령대 특히 각 출생집단이 20-24세 및 25-29세에 이르러서는 도시와 군 지역 모두에서 큰 폭의 감소가 나타났고, 이것은 전라북도 에코 부모 세대들이 선별적 이동과 연관성이 높은 20대 무렵에 다른 시도로 떠나고 있다는 것이다.

### 2) 에코 부모 세대의 지역 간 이동

시계열적으로 인구 분포의 변화를 통해서 전라북도 에코 부모 세대가 20대에 이출되고 있음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가적으로 도시로의 이입이 존재한다면, 어디에서 이입되고 있는지에 관한 분석도 요구된다.

먼저 앞서 부모 세대의 지역 간 인구이동을 분석했던 것처럼, O-D 정보를 가지고 있는 2005년과 2010년 인구센서스의 '현거주지/연령/5년 전 거주지별 이동인구'자료를 활용하였다. 해당 자료는 5세 간격으로 이동량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선별적 이동과 관련하여 2005년에는 20-24세, 2010년에는 20-24세와 25-29세의 이동정보로 제한되어 전체 에코 부모 세대를 포섭하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다. 아울러 이전 시기의 센서스와 달리 현 거주지(O) 구분이 시부·군부가 아닌 동부·읍부·면부로 변경되었고, 5년 전 거주지(D) 구분은 그대로 시부·군부이다. 전라북도 동부는 1995년 '도농복합형태의 시' 출범 이전 시부와 공간적 범위가 대부분 일치하지만, 읍부의 경우 전라북도 14개 읍 중에서 군산시의 옥구읍, 김제시의 만경읍 등 5개 읍이 도시 행정구역 내에 입지하고 있다. 따라

표 8. 전라북도 예코 부머 세대의 지역별 출생아수(출생신고 당시 행정구역 기준)

(단위: 명)

연도	전북 합계	군부	시부							비고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1979	53,666	39,629	14,037	7,683	3,514	2,840				
1980	53,849	38,877	14,972	7,965	3,928	3,079				
1981	47,417	30,857	16,560	7,896	3,778	3,297	902	687		-'81. 7. 1부 정읍/남원시 승격
1982	46,299	28,803	17,496	8,004	3,745	3,314	1,289	1,144		
1983	40,355	23,964	16,391	7,311	3,394	3,268	1,351	1,067		
1984	33,827	19,685	14,142	6,653	2,733	2,794	1,083	879		
1985	31,257	17,836	13,421	6,400	2,623	2,487	1,077	834		
1986	28,706	15,769	12,937	6,326	2,341	2,531	949	790		
1987	26,698	13,960	12,738	6,343	2,305	2,474	937	679		
1988	25,534	12,635	12,899	6,447	2,129	2,691	934	698		
1989	23,913	10,322	13,591	6,435	2,339	2,619	971	691	536	-'89. 1. 1부 김제시 승격
1990	23,562	9,008	14,554	6,957	2,411	2,979	949	731	527	
1991	24,364	8,381	15,983	7,878	2,721	3,020	1,033	778	553	
1992	25,567	8,249	17,318	8,350	3,020	3,499	1,007	866	576	
1993	25,413	7,888	17,525	8,420	3,092	3,530	978	854	651	

자료: 통계청, 연도별, 인구동태통계연보.

표 9. 전라북도 예코 부머 세대의 도시별 출생아수(1995년 이후 '도농복합형태의 시' 행정구역 기준)

(단위: 명)

연도	군 지역 합계	도시 지역 합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옥구군)	(익산군)	(정읍군)	(남원군)	(김제군)						
1979	20,304	33,362	7,683	6,122	2,608	6,627	3,787	5,095	3,426	4,409			
1980	19,515	34,334	7,965	6,610	2,682	6,682	3,603	5,357	3,283	4,437			
1981	15,713	31,704	7,896	6,066	2,288	6,392	3,095	4,590	3,688	2,909	2,222	3,851	
1982	15,020	31,279	8,004	6,008	2,263	6,292	2,978	4,246	2,957	2,946	1,802	3,783	
1983	12,831	27,524	7,311	5,339	1,945	5,614	2,346	3,697	2,346	2,583	1,516	2,980	
1984	10,461	23,366	6,653	4,228	1,495	4,848	2,054	2,944	1,861	2,077	1,198	2,616	
1985	9,651	21,606	6,400	4,013	1,390	4,278	1,791	2,762	1,685	1,865	1,031	2,288	
1986	8,426	20,280	6,326	3,619	1,278	4,156	1,625	2,363	1,414	1,684	894	2,132	
1987	7,168	19,530	6,343	3,523	1,218	4,012	1,538	2,161	1,224	1,509	830	1,982	
1988	6,539	18,995	6,447	3,177	1,048	4,139	1,448	1,974	1,040	1,431	733	1,827	
1989	5,561	18,352	6,435	3,172	833	3,933	1,314	1,852	881	1,322	631	1,638	1,102
1990	4,840	18,722	6,957	3,154	743	4,141	1,162	1,702	753	1,257	526	1,511	984
1991	4,476	19,888	7,878	3,464	743	4,186	1,166	1,748	715	1,247	469	1,365	812
1992	4,452	21,115	8,350	3,791	771	4,618	1,119	1,649	642	1,297	431	1,410	834
1993	4,297	21,116	8,420	3,813	721	4,676	1,146	1,571	593	1,269	415	1,367	716

자료: 통계청, 연도별, 인구동태통계연보.

주: 군지역은 1995년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개편되지 않은 전라북도 8개 군임.

표 10. 전라북도 에코 부머 세대의 지역별 증감(1995년 이후 '도농복합형태의 시' 행정구역 기준)

(단위: 명)

출생 집단	연도	연령 및 증감	군 지역 합계	도시 지역 합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1979- 1983년 출생	출생아수		83,383	158,203	38,859	30,145	31,607	22,985	15,147	19,460
	1993	10-14세	41,641	152,476	58,232	27,003	30,835	14,426	10,654	11,326
		출생-'93 증감	-41,742	-5,727	19,373	-3,142	-772	-8,559	-4,493	-8,134
	1998	15-19세	38,622	151,407	59,543	26,459	30,327	14,219	9,909	10,950
		'93-'98 증감	-3,019	-1,069	1,311	-544	-508	-207	-745	-376
	2003	20-24세	30,215	137,287	54,9	23,103	27,820	13,349	8,664	9,448
'98-'03 증감		-8,407	-14,120	-4,640	-3,356	-2,507	-870	-1,245	-1,502	
2008	25-29세	21,088	107,466	47,404	19,889	21,832	7,365	5,023	5,953	
	'03-'08 증감	-9,127	-29,821	-7,499	-3,214	-5,988	-5,984	-3,641	-3,495	
2013	30-34세	18,278	103,358	46,927	21,293	20,127	6,129	4,238	4,644	
	'08-'13 증감	-2,810	-4,108	-477	1,404	-1,705	-1,236	-785	-1,309	
1984- 1988년 출생	출생아수		42,245	103,777	32,169	18,560	21,433	12,204	8,566	10,845
	1998	10-14세	23,655	112,534	46,587	19,129	23,558	9,407	6,855	6,998
		출생-'98 증감	-18,590	8,757	14,418	569	2,125	-2,797	-1,711	-3,847
	2003	15-19세	22,907	110,314	46,097	17,857	22,647	10,153	6,503	7,057
		'98-'03 증감	-748	-2,220	-490	-1,272	-911	746	-352	59
	2008	20-24세	19,338	97,177	43,200	15,974	20,309	7,152	4,975	5,567
'03-'08 증감		-3,569	-13,137	-2,897	-1,883	-2,338	-3,001	-1,528	-1,490	
2013	25-29세	14,750	84,104	38,920	14,969	17,158	5,163	3,731	4,163	
	'08-'13 증감	-4,588	-13,073	-4,280	-1,005	-3,151	-1,989	-1,244	-1,404	
1989- 1993년 출생	출생아수		23,626	99,193	38,040	17,394	21,554	8,522	6,392	7,291
	2003	10-14세	18,523	114,985	50,137	18,275	23,946	10,358	6,364	5,905
		출생-'03 증감	-5,103	15,792	12,097	881	2,392	1,836	-28	-1,386
	2008	15-19세	18,273	108,128	49,602	17,374	22,751	7,593	5,399	5,409
		'03-'08 증감	-250	-6,857	-535	-901	-1,195	-2,765	-965	-496
2013	20-24세	17,130	101,646	47,197	16,596	21,677	6,701	4,697	4,778	
	'08-'13 증감	-1,143	-6,482	-2,405	-778	-1,074	-892	-702	-631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인구주택총조사/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http://rcps.egov.go.kr>)

주: 군지역은 1995년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개편되지 않은 전라북도 8개 군임.

서 동부와 읍부를 합친 것을 시부로 치환할 수는 없다.

이동자들을 대상으로 현 거주지 전라북도 동부·읍부·면부와 5년 전 거주지 전라북도 시부·군부 및 전라북도 이외로 구분하여 이입량과 이출량을 추계하면 각각 표 11, 표 12와 같다. 2005년 인구센서스 기준 20-24세 연령집단 중 5년 전 거주지가 전라북

도 이외였지만 현재 거주지가 전라북도인 인구의 규모, 즉 이입은 14,278명이었고, 그 반대의 경우인 이출은 이입량의 두 배가 넘는 30,351명이었다. 2010년에는 20-24세 및 25-29세 연령집단의 이입이 각각 16,484명과 16,369명이었지만, 이출은 23,590명과 30,634명이었다. 따라서 상당수의 에코 부머 세대가 이 전라북도를 떠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들이 전

표 11. 2005-2010년 에코 부머 세대의 전라북도 지역별 이입(현 거주지-5년 전 거주지 기준) (단위: 명, %)

연도	출생 집단	연령	현 거주지별 이입자수		이입자의 5년 전 거주지					
					전북 시부		전북 군부		전북 이외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2005	81-85년	20-24세	전북 동부	19,133	5,698	29.8	2,897	15.1	10,538	55.1
			전북 읍부	2,369	457	19.3	77	3.3	1,835	77.5
			전북 면부	2,972	917	30.9	150	5.0	1,905	64.1
2010	81-85년	25-29세	전북 동부	20,167	5,857	29.0	1,485	7.4	12,825	63.6
			전북 읍부	2,912	1,221	41.9	92	3.2	1,599	54.9
			전북 면부	2,780	767	27.6	68	2.4	1,945	70.0
	86-90년	20-24세	전북 동부	21,017	5,871	27.9	2,056	9.8	13,090	62.3
			전북 읍부	2,105	623	29.6	54	2.6	1,428	67.8
			전북 면부	2,697	634	23.5	97	3.6	1,966	72.9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인구주택총조사

주: 비율은 현 거주지별 이입자수에 대한 것이며, 5년 전 거주지의 시부와 군부는 '도농복합형태의 시' 기준임.

표 12. 2005-2010년 에코 부머 세대의 전라북도 지역별 이출(현 거주지-5년 전 거주지 기준) (단위: 명, %)

연도	출생 집단	연령	5년 전 거주지별 이출자수		이출자의 현 거주지							
					전북 동부		전북 읍부		전북 면부		전북 이외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2005	81-85년	20-24세	전북 시부	31,966	5,698	17.8	457	1.4	917	2.9	24,894	77.9
			전북 군부	8,581	2,897	33.8	77	0.9	150	1.7	5,457	63.6
2010	81-85년	25-29세	전북 시부	35,124	5,857	16.7	1,221	3.5	767	2.2	27,279	77.7
			전북 군부	5,000	1,485	29.7	92	1.8	68	1.4	3,355	67.1
	86-90년	20-24세	전북 시부	26,938	5,871	21.8	623	2.3	634	2.4	19,810	73.5
			전북 군부	5,987	2,056	34.3	54	0.9	97	1.6	3,780	63.1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인구주택총조사

주: 비율은 5년 전 거주지별 이출자수에 대한 것이며, 5년 전 거주지의 시부와 군부는 '도농복합형태의 시' 기준임.

라북도 이외 지역으로 이출한 인구의 출발지를 시부와 군부로 구분했을 때, 시부가 군부보다 더 큰 규모 그리고 더 높은 비율이었다.

이와 같은 전라북도 시부 지역에서 에코 부머의 타 시도로의 이출은 주민등록인구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2003년, 2008년 및 2013년의 주민등록 전출지-전입지 자료로 분석하면, 전라북도 시부에서 타 시도로 이출, 그리고 타 시도에서 전라북도 시부로 이입한 20대 연령 인구의 순이동은 가장 적은 경우가 -2,388

명이었고, 가장 많은 경우에는 -2,979명이었다. 이 정도 규모는 전년도의 해당 연령집단 인구수 대비 약 2.2-3.5% 수준으로, 달리 말하면 해마다 전라북도 도시지역의 에코 부머 세대 100명 중 두세 명이 전라북도를 떠나고 있다는 것이다.

전라북도 도시지역에서 이출한 에코 부머 세대들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으로 향하는 것인지를 살펴보면, 표 14와 같다. 즉 2003년, 2008년 및 2013년 에코 부머 세대를 대상으로 시군구 단위의 O-D 정보

표 13. 2003, 2008, 2013년 예코 부머 세대의 전라북도 지역별 이출·이입(주민등록인구 기준)

(단위: 명, %)

연도	출생 집단	연령	전라북도 시부에서 이출 인구								전라북도 시부로 이입 인구					
			전체 이출자	전북 시부로		전북 군부로		전북 이외로		전체 이입자	전북 시부에서		전북 군부에서		전북 이외에서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2003	79-83년	20-24세	21,117	5,023	23.8	3,886	18.4	12,208	57.8	16,834	5,023	29.8	2,582	15.3	9,229	54.8
2008	79-83년	25-29세	20,555	4,770	23.2	2,224	10.8	13,561	66.0	18,195	4,770	26.2	2,842	15.6	10,583	58.2
	84-88년	20-24세	12,704	2,626	20.7	1,286	10.1	8,792	69.2	10,192	2,626	25.8	1,734	17.0	5,832	57.2
2013	79-83년	30-34세	11,993	3,001	25.0	1,569	13.1	7,423	61.9	11,455	3,001	26.2	1,663	14.5	6,791	59.3
	84-88년	25-29세	13,609	2,876	21.1	1,259	9.3	9,474	69.6	10,796	2,876	26.6	1,389	12.9	6,531	60.5
	89-93년	20-24세	10,638	2,145	20.2	1,018	9.6	7,475	70.3	8,259	2,145	26.0	1,027	12.4	5,087	61.6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인구주택총조사/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http://rcps.egov.go.kr>)

주: 비율은 전체 이출자와 이입자에 대한 것임.

표 14. 2003, 2008, 2013년 전라북도 시부와 다른 시도 간 순이동자 수

(단위: 명, %)

연도/연령	2003		2008			2013		
	20-24세 (79-83년생)	25-29 (79-83년생)	20-24세 (84-88년생)	30-34세 (79-83년생)	25-29세 (84-88년생)	20-24세 (89-93년생)		
합계	-4,591	-2,978	-2,960	-632	-2,943	-2,388		
서울	-1,862	-1,542	-1,489	-30	-1,094	-1,221		
부산	85	-12	-20	21	-30	-27		
대구	37	40	-12	-16	-7	4		
인천	-310	-133	-122	-80	-173	-102		
광주	118	-64	-111	-73	-88	-122		
대전	-246	-56	-103	-79	-178	-176		
울산	3	-78	-43	42	-22	-33		
경기	-2,553	-660	-860	-169	-774	-569		
강원	-126	-43	-140	10	7	-40		
충북	-18	-56	-50	-90	-161	-71		
충남	-108	-196	-98	-44	-315	-133		
전남	331	-9	83	-29	-5	126		
경북	43	-32	19	-25	-41	4		
경남	14	-134	-3	-21	-43	6		
제주	1	-3	-11	-49	-19	-34		
수도권	-4,725	-2,335	-2,471	-279	-2,041	-1,892		
특별/광역시	-2,175	-1,845	-1,900	-215	-1,592	-1,677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인구주택총조사

주: 2013년 충청북도 값은 세종시를 합산한 것임.

를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 전출지-전입지 자료를 통해 전라북도 도시지역과 전라북도 이외의 지역 간 순이동자(net migration) 수를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으로의 순이출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

## 5. 지역 간 인구이동의 연령과 코호트 효과

최근 20대 연령 이상에 진입한 에코 부머 세대들이 전라북도 도시지역을 떠나고 있음이 확인되지만, 이것만으로 해당 도시들의 인구감소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이들 부모 세대인 베이비 부머 세대를 포함하여 앞선 세대들 대부분에서 20대 또는 20대에서 30대 초반 연령에 이르러서는 큰 규모로 전라북도 도시지역을 떠나 전라북도 이외의 시도로 이출해 왔기 때문이다. 앞의 제3장 표 4에서 베이비 부머가 20-29세 연령에 도달한 1985년의 전라북도 시부의 지역 간 이동량을 살펴보면, 당시 전체 이출자 중 약 78.2%가 전라북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했고, 그들의 도착지 대부분은 수도권이었다. 물론 인구센서스와 주민등록인구 자료 간 차이 때문에 단순 비교와 추가적으로 계량, 통계적 분석을 진행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이를 에코 부머 세대가 동일 연령에 진입한 2008년과 2013년의 자료와 비교했을 때 최소한 이출

방향과 그 비율이 매우 흡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부모-자녀 세대 모두 20대 연령에서 전라북도 도시들을 떠나 다른 시도, 특히 서울 혹은 수도권으로 이동했고, 이동하고 있다.

그런데 이 연구가 주목했던 단계적 이동이라는 측면에서는 두 세대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1985년 인구센서스 ‘현거주지/연령/5년 전 거주지별 이동인구’ 자료로 베이비 부머 세대가 20-29세에 이르렀을 때 전라북도 시부, 군부 및 전라북도 이외 지역 간 순이동자 수를 구해보면, 전라북도 시부에서 전라북도 이외 지역으로 이출한 20대 연령의 인구와 거의 동일한 규모 인구가 전라북도 군부에서 시부로 이입해 왔다. 반면 2008년과 2013년의 ‘주민등록 전입지-전출지’ 자료로 동일 연령에 진입한 에코 부머 세대의 지역 간 순이동자 수에서는 전라북도 시부에서 타 시도로 이출한 규모에 비해 전라북도 군부에서 시부로 이입한 수가 현저하게 적었고, 이에 따라 전라북도 도시들에서 음(-)의 순이동자 수가 해마다 누적되고 있다.

부모-베이비 부머 세대와 자녀-에코 부머 세대 간의 인구이동을 비교하면, 연령 효과로서 두 세대 모두 20대 연령에 진입할 무렵 선별적 인구이동을 하였고, 주요 이동방향은 전라북도 이외의 타 시도,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대도시였다. 하지만 코호트 효과도 확인되는데, 부모 세대의 경우 전라북도 농촌 출신 중 일부는 이 과정에서 전라북도 도시지역으로도 이동해 왔지만, 자녀 세대에서는 이런 이동이 크게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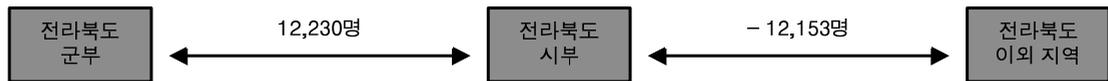


그림 5. 1985년 전라북도 시부 기준 20-29세 연령집단의 지역별 순이동자 수  
(인구센서스 현 거주지-5년 전 거주지 자료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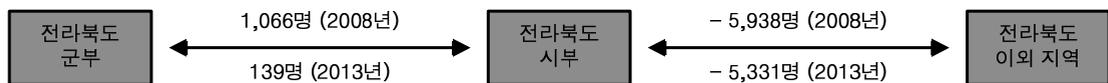


그림 6. 2008년, 2013년 전라북도 시부 기준 20-29세 연령집단의 지역별 순이동자 수  
(주민등록 전입지-전출지 자료 기준)

하였다. 즉 부모 세대 중 농촌 출생은 농촌→수도권/대도시로 이동, 도시 출생은 전라북도 도시지역→수도권/대도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농촌 출생 중 일부는 농촌에서 전라북도 도시지역으로 이입되어 왔고, 그 이동량은 전라북도 도시지역에서 수도권과 대도시로의 이출과 균형을 이루었다. 반면 자녀 세대에서는 압도적 비율로 전라북도 도시지역→수도권/대도시로의 이출이 계속되고 있지만, 농촌에서 이입되는 규모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부모 세대의 이동 출발지와 자녀 세대의 그것에 차이가 있고, 이것은 부모 세대의 단계적 이동에 기인한 것이다.

## 6. 결론

이 연구가 진행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56-1965년 전라북도 농촌에서는 도시에 비해 약 7배 이상 많은 베이비 부머 세대가 태어났고, 이들은 20대 연령 시점의 선별적 이동을 진행했다. 이동 방향은 수도권과 대도시로의 이출이 가장 두드러졌지만, 상당수는 전라북도 도시지역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전라북도 농촌→전라북도 도시로의 베이비 부머 세대 이동량은 전라북도 도시지역에서 태어나 수도권 및 대도시로 이출한 규모를 채워주는(fill up) 수준으로서 1990년 전라북도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25-34세 인구의 약 40%를 차지했다. 하지만 자녀 세대에서 이르러서는 농촌에 거주하는 부모 세대의 수보다 도시에 거주하는 수가 훨씬 증가했기에, 즉 농촌 태생 부모 세대의 선별적 그리고 단계적 이동의 결과로 에코 부머 세대는 농촌 출생보다 도시 출생의 규모가 커졌다. 그리고 이들 에코 부머 세대의 20대 연령 인구이동에 대해 출발지(O)를 전라북도 시부와 군부, 도착지(D)를 각각 전라북도 시부, 군부 및 전라북도 이외 지역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전라북도 시부에서 군부로의 이동은 미미하였지만, 전라북도 이외 지역, 특히 수도권과 대도시로의 이출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 출발지가 전라북도 군부인 경우에는 전라북도 이외 지역으로의 이동이 가장 큰 비율이었

지만, 전라북도 시부로의 이동도 버금가는 비율이었다<sup>4)</sup>. 하지만 이미 부모 세대들 대부분이 농촌을 떠났기에 전라북도 농촌에서 태어나 시부로 이입되는 인구의 절대량 자체가 부모 세대와 비교해서 상당히 적었고, 결과적으로 전라북도 도시지역의 20대 연령 집단 규모가 축소되고 있으며, 최근 전라북도 도시지역의 인구감소는 자녀 세대의 선별적, 그리고 상향 중심지로의 단계적 이동이 주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단계적 이동이라는 인구의 사회적 성장과 함께 이에 파생되는 자연적 성장도 현 시점의 전체 인구 성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우려스럽기도 과거 이촌향도에 따른 농촌의 낮은 출산력과 인구 과소의 문제가 다음 세대에 이르러 전라북도 도시지역에서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그들 생애단계에서 독립, 취업 그리고 결혼과 매우 상관성이 높은 연령에 이르러 농촌에서 전라북도 도시지역으로 이입되고, 이에 따른 인구의 사회적 증가는 출산이라는 생애 사건과 결합되어 도시인구의 자연적 증가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들 자녀 세대로서 전라북도 도시지역에서 태어나 성장한 에코 부머 세대들은 동일한 생애단계 무렵 타 시도로 떠나고 있음에 따라 단지 사회적 감소 뿐만 아니라 출산력도 함께 낮아지고 있다. 실제로 '도농복합형태의 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전라북도 6개 도시에서 태어난 에코 부머 세대의 수가 연평균 약 2만4천 명이었던 것에 비해, 최근 5년 동안의 출생아 수는 연평균 약 1만3천 명으로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이 연구가 전제했던 부모-자녀 세대에 걸쳐 진행되는 단계적 지역 간 이동(stage migration through generations)은 집계자료를 통한 세대별 분포와 지역 간 이동에 관한 분석에서 확인되며, 이러한 단계적 이동이 비수도권 중소도시의 사회적 그리고 자연적 인구성장 모두에 큰 영향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비수도권 중소도시의 과거 인구 증가와 현재, 미래의 정체를, 감소를 이해함에 있어 단계적 이동에 대한 분석이 병행되어야 함을 이 연구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미시적 자료를 이용해 특정 개인 또는 가

족·가구를 시계열적인 것이 아니라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로 먼저 구분해 놓고 각각 세대의 출생, 이동, 분포를 집계자료로 추적한 것이다. 따라서 서론에서 서술한 것처럼 ‘단계적’의 의미는 ‘stepwise’가 아닌 ‘stage’, ‘complex step’으로 한정되어, 인구이동 연구에 있어 중요한 요소들인 이동 동기, 이동과정에서 이동자들의 변화와 적응 및 세대 간 연계, 나아가 연령과 코호트 효과 이외의 기간효과를 규명하지 못했다. 아울러 이 연구에 활용된 집계자료의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지만, 개별 시군이 아닌 전라북도를 군부와 시부로만 구분해서 정주체계의 계층성, 특히 전라북도 수위도시로서 전주시가 가지는 계층성이 여타 시들과 구분되지 않고 간과된 점, 그리고 부모 세대에서는 인구센서스 자료 위주로, 자녀 세대에서는 인구센서스와 주민등록인구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한 것, 시계열적인 행정구역 변화에 따른 추적 등에서도 이 연구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Conway(1980)가 제시한 미시적 자료의 획득과 구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이 향후 연구의 몫임을 밝힌다.

## 주

- 1) 2012년 7월 출범한 통합 창원시를 이전 창원, 마산, 진해시로 구분한 도시의 수이다.
- 2) Pryor(1969)는 ‘single step migration’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 여러 차례 연속(continuum) 이동을 통해 농촌에서 중소도시,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나 수도지역으로 이동한 경우로, ‘complex step migration’은 어떤 이는 농촌에서 중소도시로 이동하고, 다른 이가 중소도시에서 대도시·수도로 이동하는 것 또는 자료 상의 한계로 ‘single step migration’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이후 Skeldon(1977)은 ‘single step migration’을 대신해서 ‘step migration’, ‘complex step migration’에 대해서는 ‘stage migr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 3) 김태현(2010)은 베이비 붐에 대한 정의를 출산율 급등으로 출생아수가 일시적으로 급증한 현상이라고 말한다면, 서구사회의 경우에는 출산율의 급등과 출생아수의 급증 시기가 동일하여 베이비 붐 시기를 정하는 데 혼란이 없지만, 우리나라는 출산율 급증시기는 1회이지만, 출생아수

급증시기는 2회에 걸쳐 나타났기에 이전 논의들보다 확대된 1955년에서 1974년까지가 베이비 붐 시기라고 주장하였다. 즉 출산율 급등과 출생아수 급증이 정점에 이르렀던 1960년과 한번 더 출생아수 급증해서 정점에 이른 1971년을 기준으로 전·후 각 10년씩 총 20년이 베이비 붐의 시기이며, 1955-1964년생을 전기 베이비 붐 세대, 1965-1974년생을 후기 베이비 붐 세대로 제시하였다. 김순옥(2010)도 우리나라 인구구조상 베이비 붐 세대를 1950년대 중반부터 20여 년에 걸쳐 태어난 인구층으로 보다 넓게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시하였다.

- 4) 2013년 주민등록 전입지-전출지 자료를 기준으로 전라북도 8개 군지역의 20-24세(1989-1993년생), 25-29세(1984-1988년생), 30-34세(1979-1983년생) 등 예로부터 세대가 전라북도 시부와 전라북도 이외 지역으로 이출한 규모는 각각 4,079명과 5,676명이었고, 이는 전체 이출자 중 약 40.2%, 56.0%를 차지하는 것이다.

## 참고 문헌

- 권상철, 2005, “우리나라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 시기별 유출지역 특성과 이주자 선별성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1(6), 571-584.
- 권태환·김두섭, 2007, 인구의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부, 서울.
- 김순옥, 2010,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와 국민연금재정,” 연금포럼, 37, 20-27.
- 김태현, 2010, “우리나라 인구전개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의미,” 연금포럼, 37, 4-11.
- 이상람, 2009, “연령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 최초이동, 계속이동, 귀환 이동,” 한국인구학, 32(3), 43-72.
- 최진호, 2008, “한국 지역 간 인구이동의 선별성과 이동 이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1(3), 159-178.
- 통계청, 2010, 사회조사통계 통해 본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
- 통계청, 2011, 장래인구추계: 2010-2060.
- 통계청, 2012a,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10-2040.
- 통계청, 2012b, 베이비부머 및 예코세대의 인구·사회적 특성분석: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중심으로.
- Anderson, M., 1971, *Family structure in nineteenth century Lancashire*, CUP Archive; Cambridge.

- Conway, D., 1980, Step-Wise Migration: Toward a Clarification of the Mechanism,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14(1), 3-14.
- Foot, D. K., and Stoffman, D., 1996, *Boom bust and echo: how to profit from the coming demographic shift*, Macfarlane Walter & Ross, Toronto.
- Grigg, D. B., 1977, E. G. Ravenstein and the “laws of migration”, *Journal of Historical Geography*, 3(1), 41-44.
- Hägerstrand, T., 1957, Migration and area; survey of a sample of Swedish migration fields and hypothetical consideration in their genesis, in *Migration in Sweden: a symposium*, Hannerberg, D., Hägerstrand, T. and Bruno, O.(eds), Lund studies in geography, series B, human geography, 13, 27-158.
- Hudson, J. C., 1975, Some observations in migration theory for an urban system, in *People on the move: studies on internal migration*, Kosinski, L. A. and Prothero, R. M.(eds), 67-74, Taylor & Francis.
- Lawton, R., 1955, The population of Liverpool in the mid-nineteenth century, *Transactions of the Historic Society of Lancashire and Cheshire*, 107, 1841-1861.
- Lee, E. S., 1966, A theory of migration, *Demography*, 3(1), 47-57.
- Olsson, G., 1965, *Distance and human interaction: A review and bibliography*, Region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Bibliography series 2.
- Plane, D. A., 1992, Age-composition change and the geographical dynamics of interregional migration in the US,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82(1), 64-85.
- Pryor, R., 1969, Law of migration?; the experience of Malaysia and other countries, *Geographica*, 5, 65-76.
- Ryder, N. B., 1965, The cohort as a concept in the study of social chang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0(6), 843-861.
- Ravenstein, E. G., 1876, Census of the British Isles, 1871: Birthplaces and migration, *The Geographical Magazine*, 3, 173-177(july), 201-206(august), 229-233(september).
- Ravenstein, E. G., 1885, The laws of migration, *Journal of the Statistical Society*, 48, 167-227.
- Ravenstein, E. G., 1889, The laws of migration, *Journal of the Statistical Society*, 52, 214-301.
- Riddell, J. B. and Harvey, M. E., 1972, The urban system in the migration process: an evaluation of step-wise migration in Sierra Leone, *Economic Geography*, 48(3), 270-283.
- Saville, J., 1957, *Rural depopulation in England and Wales, 1851-1951*. Routledge; London.
- Skeldon, R., 1977, The evolution of migration patterns during urbanization in Peru, *Geographical Review*, 67(4), 394-411.
- Weber, A. F., 1899, *The growth of cities in the nineteenth century: a study in statistic 29*,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 Weeks, J. R., 2011, *Population: An introduction to concepts and issues*. Cengage Learning.
- Withers, C.W. J. and Watson, A. J., 1991, Stepwise migration and Highland migration to Glasgow, 1852-1898, *Journal of Historical Geography*, 17(1), 35-55.
- 교신: 이정섭, 561-75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쌀·삶·문명연구원 (이메일: yisup@jbnu.ac.kr, 전화: 063-270-4631)
- Correspondence: Chungsup Lee, Institute of Rice, Life and Civiliz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567 Baekje-daero, deokjin-gu, Jeonju-si, Jeollabuk-do, 561-756, Korea (e-mail: yisup@jbnu.ac.kr, phone: +82-63-270-4631)
- 최초투고일 2014. 8. 2  
수정일 2014. 8. 25  
최종접수일 2014. 8. 26